James Goss

해외 ARTIST 제임스 고스

1956년생 미국

2025 / 08 / 14



<Down by the Lake> 리넨에 유채 91.4×91.4cm 2024

“한 송이 꽃이 지닌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삶 자체의 의미와 잠재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버지니아 울프

제임스 고스는 어린 시절부터 잔디 한 올, 꽃 한 송이, 그림 한 점까지 유난히 세심하게 들여다보았다. 꽃의 중심을 처음으로 응시하며 그 안에 전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거나, 잎사귀 뒷면에 얽힌 정교한 능선과 골짜기의 지도를 찾아내는 느낌은 흔하진 않아도 익숙한 경험이다. 아마도 고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그가 결코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았고, 자연이 일상 속에서 펼쳐 보이는 기적 같은 풍경들을 향한 경이와 놀라움을 결코 무디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는 <Gates of Paradise>에 전시된 여덟 점의 그림이 다루는 주제, 범위, 그리고 규모가 모두 증명해 준다. “제가 충분히 집중하고 마음을 열면, 자연과 제 사이에 대화가 시작됩니다”라고 고스는 말한다. “그러면 저는 마치 어떤 통로처럼 되어버려요.”

지난 40년간 애디론댁(Adirondacks) 지역에서 거주하고

작업해 온 고스에게, 인근 챔플레인 호(Lake Champlain)에서 보트를 띄우거나 집 앞 정원을 가꾸는 일은 캔버스 위에 오일을 바르는 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예술적 실천이다. 그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야외를 관찰하고 그 풍경을 온전히 흡수한 후에야, 비로소 머릿속에 형상과 감정, 색채가 나타나고 그것을 물감으로 옮겨 담는다. 주변 초원에 피어 있는 백일홍(zinnia)의 꽃잎 하나하나나, 풀잎 한 가닥 한 가닥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대신, 그는 '자세히 들여다본 경험'을 그릴 뿐이지, '자세히 들여다본 대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 애쓰지는 않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테크니컬러의 몽환적 풍경은 별만큼이나 크게 그려진 꽃, 장밋빛으로 물든 호수, 물과 하늘의 경계가 무너지는 듯한 수평선처럼,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e)를 떠올리게 하며 사실주의의 한계를 과감히 밀어붙인다.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온갖 색채와 붓질, 구도가 어우러져, 황홀함에 가까운 희열로 가득 찬 느낌을 자아내며, 압도적인 환희를 선사한다.

산이든 나무든, 그 복잡함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면서도 동시에 놀랍도록 단순하다는 사실이 전시 전반에서 강조된다. 지질학적 형태와 생물학적 형태 양쪽에서 거듭 나타나는 기본 기하학적 도형들—유기적 곡선의 원, 타원, 삼각형, 줄무늬, 별 등—을 섬, 호수, 꽃, 나무를 묘사하는 데 활용하여 표현된다. 낮이든 밤이든, 어느 시간대나 계절이 바뀌어도 이 영속적인 형태들은 각 장면에서 변함없이 유지된다.

"이건 보편적인 언어죠"라고 고스는 설명한다. "산은 무수히 많은 종()이 한데 모인 작은 소우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삼각형이기도 해요. 결국 지평선도 선 하나에 불과하니까요! 누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진처럼 사실적인 표현을 과감히 배제하면서, 작가는 회화의 물질성에 의지해 디테일을 구현한다. 고스는 두껍게 짜낸 많은 양의 유화를 조각하고, 쌓고, 깎고, 겹쳐 바르고, 변형함으로써 꽃잎의 물결무늬나 풀밭의 풍성함, 모래사장의 거친 질감을 재현한다. 느릅나무 줄기에 새겨진 마디와 홈을 들여다보면, 마치 손바닥 아래 비늘처럼 갈라진 나무껍질을 실제로 느끼는 듯한 공감각적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캔버스 위에 두텁게 쌓인 물감은 일종의 얕은 반부조(bas-relief)를 이루어, <The Beginning>-에서처럼 전경에 있는 사물들이 캔버스 밖으로 솟아나는 듯한 효과를 낸다. 이 작품에서는 느릅나무가 시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화면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 독특한 선형적 깊이가 오묘하게 살아나면서도 더욱 실감 나게 만든다.

이 작품들이 자아내는 초현실적 분위기는 무엇보다도 과포화된 색채 팔레트에서 비롯된다. 고스는 직접 색을 조합하면서, 자신이 매일 목격하는 자연 그대로의 빛을 재현하기 위해 '강렬함'과 '생동감'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완전히 단색으로만 이루어진 구성을 지양하긴 하지만, 한 가지 색이 작품 전체를 압도하며 풍경을 지배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것은 햇빛이 비추며 닿는 모든 것을 감싸고 변화시키는 방식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Evening at Lincoln Pond>에서는 하늘이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반영하듯, 미드나이트 블루에서 코발트, 세룰리언 블루까지 다채로운 파랑 계열이 펼쳐진다. <Early Spring Light>와 <-New Life>에서는 작약을 닮은 분홍빛이 물과 땅, 대기를 하나로 묶어낸다.

전시 전반에 걸쳐 색채는 대칭성과 반복성을 표현하고 탐구하는

중요한 매개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형태의 유동성, 경계의 환영,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체험하게 만드는 게슈탈트적 효과가 한층 더 부각된다.

—타라 앤 달보(Tara Anne Dalbow), 로스앤젤레스 기반 미술평론가 겸 작가. 글 요약 및 번역: 이준상, 엘리제레 디렉터

* 이 기사는 2025년 8월호 특집 「키아프 & 프리즈 하이라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